No. 19 권 982 호 2025 년 11 월 23 일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성령충만, 예수 찬양, 할렐루야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9)

<교회를 섬기시는 분>

•은 퇴 목 사 : 김 성 규
•시니어 목사 : 박 성 열
•담 임 목 사 : 나 상 철
•협 동 목 사 : 김 형 훈
•전 도 사 : 김 정 금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 일요일 오전 11 시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
•목장모임 : 각 목장별로
•청년부모임 : 일요일 오전 11 시
매주 목요일 오후 6 시
•중고등부모임 : 일요일 오전 11 시
•아동부모임 : 일요일 오전 11 시

Praise Jesus 뉴질랜드예수찬양교회
교회주소: 5 Gladstone Road, Northcote, Auckland 0627
YouTube 유튜브 검색창에 ' 뉴질랜드 예수찬양교회' 입력

주일 예배 순서

예배인도: 나상철목사

경배와찬양	(인도: 김형훈목사)	다같이
입 례 송	거룩 거룩 거룩 (찬송가 8 장)	다같이
예배 기원		인도자
송영-Doxology	찬양 성부 성자 성령(찬송가 2)	다같이

말씀교독 31. 시편 68 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1-6)

(다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10 하)

신앙고백	(새)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Hymn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 장)	다같이
예배기도		박현주
봉 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찬송가 314 장)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성도의 교제 및 광고		다같이
성경봉독	누가복음 18장 18-27절	다같이
말씀선포	'선악과' 라고 이름한 이유	박성열목사
파송찬양	주님 말씀 하시면	다같이
축 도		박성열목사
축복송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금주의 말씀〉

'선악과'라고 이름한 이유

누가복음 18장 18-27절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위해 에덴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실수나 생명나무와, 구별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여기서 선악과는 먹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진위/眞僞와 선악/善惡

그런데 많은 이름 중에 하필 '선과 악'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이와 상관된 '진리와 거짓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설득력이 있는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셨으니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진리/True와 거짓/False,을 추구하는 것은 과학, 수학, 논리학과 같이 눈에 보이는 사물, 사건의 사실、진실을 따지는 자연과학의 영역입니다. 반면 선/Good과 악/Evil을 추구 한다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도덕, 윤리학과 같은 인문학 영역이죠.

자연과학(自然科學, natural science)이 객관적인 자연현상을 다루는 학문인 것에 반해, 인문학(人文學, humanities)은 인간의 가치탐구, 표현활동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 되게 하기 위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선과 악이 따로 없습니다. 뻐꾸기의 탁란이나, 하이에나의 야비함, 늑대의 무자비함을 인간의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기준이 바로 '선악' 유무죠.

진위는 객관적 자연현상에 의해 결정되지만, 선악은 주관적 인신人神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善, 악/惡'과 '진/眞, /위僞'를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그런 이유로 이 둘이 같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은 선(ex. 사랑)이고, 어떤 특정한 행동은 악(ex. 미움)이라고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가령 '죽이는 것/殺'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창세기 2-4장을 보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악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주시기 위해 양을 죽인

것은 선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28, 29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삼천명 가량이 죽인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럼 '사랑'선일까요? 악일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여 선악과를 남편에게 준 것과, 사랑하여 이를 받아먹은 것은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동물의 어떤 행동도 선과 악이 없습니다. 반면 동물은 강약/强弱만으로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외적인 힘에 의해서만 브레이크/brake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기에 주어진 특권인 '선, 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에 의해서 선악이 결정됩니다. 결정되어 있는 선악이 따로 없고, 관계에 의해 선과 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기준을 주시는 분은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의 의미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열매엔 사람 몸을 해롭게 하거나 독이 들어있어서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이 원하면 먹을 수는 있지만 어떤 외적인 물리적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브레이크(brake/制動)를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을 짐승이 아닌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반면 짐승은 내면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단지 물리적 힘에 의해 전진하고 멈출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이 물리적 강함을 추구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결국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으로 키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3장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선악을 따지는 '가치 인식'은 먹고 사는 문제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선악을 따지면, 못 먹고 못 사는 지경에 이릅니다. 반면 진위를 따지는 '사실 인식'이 수학과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먹거리를 줍니다. 대학에서 인문학이 점차 사라지고, 자연과학만 살아남은 이유와 맥을 같이합니다. 결국 우리는 먹는 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는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선악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가치가 생기고 멋져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인 가치/Value를 인식하고 그 가치로 하나님과 사랑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3장 2-5절 말씀에서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됩니다. 이 유혹의 숨은 의도는 진위를 통해, 관계 즉 선악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져봐! 사실은 이런 거야! 그러니 관계에 신경 쓸 것 없어!'라고 설득합니다.

여기에 설득되니 '선, 악'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규정된 진위가 인간의 도덕까지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즉'이라는 단어는 '사실 인식'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하여 예배당 문을 나서더라도 사탄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언제나 그 은혜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먹고 싶으면 먹어! 사랑하고 싶으면 마음 가는 데로 그냥 사랑해!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네 뜻대로 안 되는데 관계가 뭐 중요해!!'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냐! 이제 자유를 받아들여!'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 말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 되라'고 꼬드기는 달콤한 사탕입니다. 이러면서 인간이 인간이기에 지닌 가치를, 동물 수준으로 내다 버리는 겁니다. '가치 인식'인 선과 악은 사라지고 '사실 인식'인 진과 위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were opened),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렇게 '아담의 선'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악을 덮고, 남의 죄를 들추어내는 위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만이 선이시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막10:18)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개역한글) "Why do you call me good?" Jesus answered. "No one is good—except God alone. (NIV)

이 말씀에서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종종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유일하게 선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절대선/善'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이 이 절대 선에 저촉을 받아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한다면 그 이유로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어둠이나 추위처럼요. 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 속에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명재는 '하나님만 홀로 선하시다'는 오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큰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의미인가?'이런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선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앞선 구절, 누가복음 18장 18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우리는 이 '부자 관리'의 세계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는 어느 정도 정리된 세상의 선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가 탐문해보니 예수님은 여러 선한 사람 중의 손꼽히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존경할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존경을 담아 무릎을 꿇고(막 10:17)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규정한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 드린 아담의 선, 인간 기준의 선, 가치인식이 아니라 사실 인식에 기인한 선이었습니다. 그는 선을 선이라 판단할 수 있는 유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까지도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선하다 악하다 판단해 온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누구를 선하다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누구를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운 선, 악의 기준이 과연 절대적 선, 악일 수 있느냐? 너는 무엇을 선, 악의 기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선악의 기준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막 14:9)

창조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선하다/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창1:4)고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카오스 혼동이 상태였음에도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선이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카오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나의 삶은 선합니다.

그 '부자 관리'의 또 다른 세계관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한 이 관원에게는 절망이죠. 더구나 영생의 반대 의미로 '멸망, 지옥'이란 결국 하나님의 부재임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진리와 거짓 중에, 진리를 잘 구별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가는 유토피아, 영생을 생각했던 이 관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영생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 23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이 말씀은 객관적 진위를 따지는 사실인식에서 벗어나 주관적 관계를 따지는 가치인식으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대부분의 세상이 공감하는 '객관적 진위를 따지는 사실인식'에서 벗어나, '주관적 관계를 묻는 가치인식'으로 초청하십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눅 15: 29-32)

이렇게 우리는 장남의 주장에 길들여져 있으며 지금껏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장남의 사실인식 주장을 들고, 가치인식으로 초청을 합니다. 형은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네 동생' 이라고 고쳐 주었던 겁니다.

---

* 금주의 암송 말씀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개역한글)

"Why do you call me good?" Jesus answered.
"No one is good—except God alone. (NIV)

* 금주의 묵상

1. 내 삶에서 종종 겪는 가치인식에서, 사실인식으로 돌이키려는 유혹은 무엇인가?
2.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이 명제는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3. 성경에서 사실인식에서 가치인식으로 초청한 예는?

<교회소식>

환영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다음 주(11 월 30 일) 예배시무 및 봉사

안내: 이종진 / 대표기도: 최성진 / 애찬봉사 : WGBC / 식후봉사: 남전도회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큐티 나눔(금주: 요한복음 13 장 1-20 절)

결혼식

12 월 13 일 (토), 한국에서, 나상철목사(김영옥 사모)의 큰 아들 나명훈군과 김아영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일로 김영옥 사모님은 11 월 24 일, 나상철 목사님은 12 월 1 일에 출국합니다. 안전한 여행과, 원활한 결혼식 준비와, 결혼식과, 결혼하는 부부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026 년 교회 달력

2026 년 교회달력이 나왔습니다. 벽걸이와 탁상용 달력 각 가정당 1 부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밀알봉사

11 월 29 일은 여전도회의 밀알장애인 선교단을 위한 식사 봉사가 있습니다.

출타

김정금(태국)

Outreach(선교봉사활동)

예수찬양교회는 금번 여름 수련회의 Concept 을 그간의 교육, 휴식, 휴양에서 Outreach(선교봉사활동)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소: Ōrere Point 지역, 대상: Ōrere Point 지역 주민들과 Holiday Park 캠프 참여자들

일시: 2025 년 12 월 24(수)-27(토)일(3 박 4 일)

내용: 1. 마을 방문 전도 및 봉사 2. 콘서트

캠프장소: **Orere Point TOP 10 Holiday Park (5 개유닛)**

캠프 참가 신청: 조장에게 (성인 : 150 불, 어린이 청년 학생: 100 불)

소그룹 모임 안내

만나모임/목장	만나장/인도자	소 개
말씀큐티만나	최성진	매일 말씀 묵상하는 모임
말씀암송만나	이송자	주일 말씀 요절을 암송하는 모임
성경필사만나	김정금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며 은혜 받는 모임
성경통독만나	이종진	모임 신,구약을 읽으며 묵상하는 모임
하늘소망목장(북부)	이종진	격주 토요일 오후 6 시
비옥한목장(시티,서부)	최성진	격주 화요일 오후 7 시
토요산책	박지니	매주 토요일 오후 힐링 산책

11/12 월 시무 및 봉사

주일예배	11/9	16	23	30	12/7	14	21
안 내	이종진	이병호	이병호	이종진	이병호	이병호	김정금
대표 기도	유민아	이성용	박현주	최성진	이종진	김정금	이병호
오후활동	조별나눔	조별나눔	조별나눔	조별나눔	조별나눔/월례회	조별나눔	조별나눔
애찬담당	박선영	김영옥	김성규	WGBC	이종진	박현주	이송자

지난주헌금 통계

일시	십일조	감사	특별/선교	주일	총계
11 월 16 일	320	635	*	121	1076

온라인 헌금계좌: 12-3230-0322228-00 *New Zealand Praise Jesus Church